5대 지방은행, 작년 호실적에도 수익성 '뚝'

지난해 순이익 1조1216억… 11.7% 증가
순이자마진 부진 지속… 1% 후반대 추락
저금리 장기화… 수익구조 개선이 '관건'

지난해 3분기까지 고전하던 지방은행이 4분기 들어 만회하면서 예상 밖의 호실적을 냈다.

그러나 순이자마진(NIM)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올해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예견된 만큼 수익구조 개선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등 5대 지방은행의 2019년 연간 당기순이익은 1조1216억원으로 2018년(1조43억원)보다 11.7% 증가했다.

대내외 경기 침체 장기화와 지역경제 불황에도 호실적을 낸 것은 지난해 4분기 특이요인이 없었고, 원화대출 위주로 자산을 늘리고 자산건전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통상 4분기는 희망퇴직이나 충당금 지출 등의 이유로 전 분기보다 성적이 부진한 편인데, 2018년 4분기 마이너스 손실을 냈던 게 지난해 4분기 기저효과로 작용했다.

특히 지난해 3분기까지 실적 악화로 몸살을 앓던 대구은행의 경우 연간으로 가장 높은 순이익 증가율(20.2%)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명예퇴직을 단행하지 않아 명퇴비용 545억원이 줄었고, 대손충당금 전입액도 감소하면서 4분기 458억원의 순이익을 냈기 때문이다. 2018년 4분기에는 -463억원의 순손실을 냈었다.

원화대출이 연간 11.1% 성장한 것도 순이익 증가세를 부추겼다. 이는 기업대출이 9.7% 성장했고 가계대출이 13.7% 대폭 늘어난 결과다. 2018년 연간 대출 성장율은 2.8%에 불과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도 3분기까지 부진하다가 가계대출 위주 성장에 기반해 원화대출금이 전년 말 대비 각각 5.6%, 0.8% 증가했고, 2018년 4분기 손실 요인이 지난해 4분기에는 사라지면서 연간 순이익이 증가했다.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의 경우 꾸준한 실적 오름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연간 순이익은 각각 9.8%, 8.1% 증가했다. 그간 약점이던 저조한 대출 증가율도 타 은행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했다.

문제는 저금리 장기화로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은행 모두 NIM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다. NIM 하락은 수익성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5대 지방은행의 지난해 4분기 평균 NIM은 2.11%로 3분기보다 0.07%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부산, 대구, 경남은행의 NIM은 1%대로 추락한 상태다.

대구은행 NIM은 2018년 1분기(2.28%) 이후 하락곡선을 타며 지난해 4분기 1.93%까지 떨어졌다. 부산은행도 2018년 2분기(2.40%) 이후 지난해 4분기 1.98%를 찍었다.

지방은행 중 NIM 수준이 가장 나쁜 곳은 경남은행이다. 지난해 4분기 NIM은 1.81%로 2018년 1분기(2.25%) 이후 연속해서 하락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경우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대출수익률 하락 폭(0.16%~0.19%포인트)이 예수금비용률 하락 폭(0.08%~0.09%포인트)보다 커 NIM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의 NIM은 2%대를 유지했으나 대출금리가 하락하고 핵심예금 증가 등으로 수신금리도 하락하면서 전 분기보다 각각 0.07%포인트, 0.04%포인트 떨어졌다. 3분기까지 차별적으로 방어했던 NIM 수준이 4분기부터 타 은행 추세와 동행하는 모습이다.

NIM 하락으로 이자이익도 은행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감소율을 보면 부산은행 -5.8%, 대구은행 -2.0%, 경남은행 -7.3%, 광주은행 -4.1% 전북은행 -2.0%를 나타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대책으로 가계대출이 억제되면서 올해 대출자산 성장 둔화도 불가피한 만큼 원화대출로 수익 방어하는 것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방은행은 시중은행보다 예대율에 여유가 있는 만큼 여수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사진=시장경제DB. 부산은행 전경.

윤희원 기자 hieyoon@meconomynew.com

해외여행·펫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캐롯손보



캐롯손해보험은 최근 출시한 여행보험과 펫보험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다. 해당 기간 다른 보험사들이 이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손해보험협회는 '스마트ON 해외여행보험'과 '스마트ON 펫산책보험'에 각각 3개월,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스마트ON 해외여행보험는 횟수에 상관 없이 1년간 여행일 만큼만 납부하는 상품이다. 스마트ON 펫산책보험은 산책 갈 때마다 1회당 보험료를 정산하는 상품이다.

또한 캐롯손해보험은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는 '퍼마일 자동차보험 프로세스' 관련해, 특허청으로부터 BM(Business Model)특허를 획득했다. 캐롯 플러그를 이용한 자동 주행거리 확인과 보험료 정산 과정에 대한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김병탁 기자 kbt4@meconomynews.com

Cannes Lions 수상작 지면 전시



Industry Craft Bronze Lion Campaign

Title: PIRARUCU 피라루쿠 (남미 북부 지방에 사는 세계 최대의 민물고기)
Client: AMBEV
Agency: ALMAPBBDO, Sao Paulo
Product: GUARANA ANTARCTICA 과라나 안타티카(브라질 탄산음료)

Copy: Drink with this poster.
Turn this poster into paper straws by following these steps
포스터 아래쪽 줄무늬 띠를 하나씩 떼어내면, 종이빨대로 말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 최소 투자액 1억→3억원

사모펀드로 둔갑한 공모펀드 판매 차단
금감원, 라임운용에 검사반… 위법 감시

투자자보호안 발표

앞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들의 최소투자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진다.

공모펀드를 형식상 사모펀드로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사모펀드 실태점검을 통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이같이 발표했다. 최근 사모펀드 시장에서 불완전판매와 유동성관리실패 등 위법과 부당행위가 발생하자 이 같은 1차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시장현황과 잠재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모운용사 등 52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부작용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내놓았다.

먼저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이 기존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변경됐다. 레버리지 200%이상 펀드는 최소투자금액이 종전 3억원에서 5억원 이상으로 뛰었다. 공모펀드를 형식상 사모펀드로 판매하는 것도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공모판단 기준을 강화해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유사한 펀드가 6개월 이내 50인 이상에게 판매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하기로 했다.

TRS 계약시 거래상대방을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로 제한하고, PBS의 사모펀드 레버리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TRS 계약의 레버리지는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400%)에 명확히 반영하기로 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인 사모펀드는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파생상품이 내재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20% 이상인 상품이다.

투자자 보호장치에 따라 앞으로 은행들은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만 사모펀드 관련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일반투자자에게 판매시 녹취의무와 숙려기간도 부여된다.

개인투자자에게 핵심설명교부를 의무화하고, 이에 투자위험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설계부터 판매까지 영업행위 단계별로 운용사와 판매사가 연계해 준수해야할 행위준칙도 생겼다.

금감원은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펀드에 대한 판매사 책임과 관리감독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담중개업무(PBS) 제도도 개선된다. 전담중개업무는 해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증권대차, 신용공여, 펀드재산의 보관-관리 등 일련의 서비스를 연계해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업무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목적(증거금 100% 미만) TRS(총수익스와프) 계약시 거래상대방을 전담계약을 체결한 PBS로 제한한다. PBS 본인이 사모펀드에 제공한 레버리지 수준을 평가하고 리스크 수준을 통제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상시감독과 검사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적시에 충분한 현황파악이 가능하도록 감독당국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자본금 유지요건(7억원) 미달 등 부실 운용사를 적극 퇴출할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가능도 강화된다.

최근 대규모 상환-환매연기가 발생한 라임펀드에 대해서는 해당 운용사에 금감원 검사반이 파견됐다. 금감원은 펀드 투자자산의 회수와 상환-판매 과정을 밀착 모니터링 하고 있다. 검사를 통해 환매연기와 손실발생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제재하고 검찰과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 방향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오는 3월 중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나리 기자 nalleehappy@meconomynews.com

'DLF 은행 과태료' 금융위, 140억 낮춰

우리銀 40억 하나銀 100억

1분기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완화되겠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내려진 과태료 규모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에서 경감됐다. 우리은행은 230억원에서 190억원으로, 하나은행은 260억원에서 160억원으로 축소된 것이다.

은행들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배상에 임했다는 점이 과태료 액수 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DLF 제재와 관련한 은행별 과태료 제재 건을 상정하고 부과액을 이같이 확정했다. 앞서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에서 우리·하나은행에 각각 230억원, 260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과태료 부과액이 낮아지자 금감원 결정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증선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과태료 경감은 부과 기준에 맞춰 기계적으로 따져 판단하므로 결과를 정해놓고 하지는 않았다"며 "금감원과 배치된다는 것은 논평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금융위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증선위 결정이 사실상 과태료 부과 결정의 최종 단계이지만 과거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수정된 사례가 있어 금액이 변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진=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일반적으로 금융위 제재 심의 과정은 증선위, 안건 검토 소위원회, 금융위 전체회의, 사전통지 및 의견개진 기간(10일)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배소라 기자 bsrgod78@meconomynews.com